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82**
2025. 09

체전은 지금

2025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최종안 보고회 개최

금빛 훈련일지

부산 서구청&부산광역시체육회 롤러팀

전국체전 trivia

전국체육대회, 변화를 넘어 진화의 길로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5. 09 Vol. 82

발행일 2025년 9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82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문찬식,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Instagram



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부산 스포츠

- 04 **체전은 지금**
2025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최종안 보고회 개최
- 06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사격연맹 이상돈 회장
- 10 **금빛 훈련일지**
부산 서구청&부산광역시체육회 롤러팀
- 14 **푸른 바다, 큰 꿈**
부산체육중학교 사이클부

산뜻한 출발, 영광의 시작

- 18 **경기장 밖 부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신규 참가팀 소개
- 22 **Sports is Busan**
2025 부산-후쿠오카 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
- 26 **전국체전 trivia**
전국체육대회, 변화를 넘어 진화의 길로
-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또지코리아 만덕

하 나된 꿈, 행복으로

- 34 **스포츠 기자단**
- 2025 부산 국제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 제8회 부산광역시장배 줄넘기대회
- 38 **종목 소개**
주짓수
- 42 **스포츠&컬처**
나는 세상에서 자전거가 제일 좋다

나와 너, 우리 함께

- 44 **BSC 뉴스**
- 2025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 2025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 하는 청소년 체육교실 개최
- 48 **회원단체 소식**
- 52 **센터 INFO**
-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56 **부산체육 퀴즈**



06 부산체육人



10 금빛 훈련일지



22 Sports is Busan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34 스포츠 기자단



38 종목 소개



44 BSC 뉴스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2025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최종안 보고회 개최

열정과 화합의 무대가 될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의 연출 최종안 및 행사 운영 추진사항 점검을 위해 8월 26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보고회가 개최되었다.

부산광역시는 10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2025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최종안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는 2024년 12월에 선임된 박칼린 연출 총감독, 유준규 연출감독, 방용석 음악감독, 전수양 구성작가, 김정은 제작피디, 연출 대행사 케이비에스 엔(KBS N) 연합체, 문화·기획·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사 운영 자문위원회, 박형준 시장, 정무특별보좌관, 홍보기획보좌관, 체육국장, 문화국장, 관광마이스국장, 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개·폐회식 연출 방향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엔진 역할을 했던 부산의 위대한 역동성과 생명력을 상징적인 아이템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보여주고, 선이 굵고 활기찬 부산 사람의 에너지와 정을 담아 선수단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모두가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화려한 쇼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주제 공연과 공식 행사를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부산의 역동성과 생명력뿐만 아니라 근현대사와 미래 비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화려한 쇼로 구현할 예정이다.

10월 17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릴 개회식은 ‘뱅기 뜬다, 날자!’를 주제로 치열한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부산 해변을 동기(모티브)로 한 무대에서 즐기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차기 개최지 제주와의 연결을 바닷길·하늘길로 표현해 미래를 향한 두 지역의 염원을 안무와 공연으로 풀어낸다.

총연출을 맡은 박칼린 감독은 고향인 부산에서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것을 무대에 담았다며 “이번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은 남녀노소 관객 모두가 마음껏 즐

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부산의 이모저모를 담아낸 무대인 만큼 부산 시민이 경기장을 찾아 함께 즐기고 이를 전국의 관객들과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와 전국체육대회가 대규모 야외 행사인 만큼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수단, 공연단, 관람객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부산 전역이 축제의 장이 되는 특별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 10월의 부산이 들썩일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의 무대로 만들겠다. 개·폐회식은 물론 경기 운영, 관람 환경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선수단과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82개소에서 50개 종목(정식 48개, 시범 2개)의 경기가 펼쳐진다. 선수 및 임원 약 3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힘차게 쏘아 올린 총알의 저력

부산광역시사격연맹 이상돈 회장

철나의 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과녁을 겨냥하는 스포츠, 사격. 부산은 김장미, 김서준 등 걸출한 사격선수들을 보유한 ‘사격의 도시’이다. 그리고 여기, 선수들을 위해 호기롭게 지원 사격에 나선 사람이 있다. 부산광역시사격연맹 회장을 맡은 이상돈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바다에서 허공을 가르는 총알까지

이상돈 회장은 고등어를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이다. 그가 사격연맹의 회장을 겸임하게 된 건 사격연맹의 제안으로부터였다.

“평소 스포츠라면 가리지 않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헬스, 야구 등 안 해본 스포츠가 없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사격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격은 특히 이색적인 스포츠여서, 더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한 관심만으로 사격연맹의 회장을 맡은 건 아니다. 회장의 부재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던 사격연맹의 상황이 안타까워, 직접 회장이 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사격연맹에서 직접 회장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사격연맹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직접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회장직을 맡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좋은 선수를 양성하고자 애쓰는 임원과 코치들의 열정에 반한 탓이다.

“회장을 맡고 나니, 이분들이 얼마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저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총구가 향하는 방향

회장이 된 후, 그가 내세운 목표는 하나였다. 바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것’.

“부산에는 이미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선수를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선수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목표로 한 바를 이루기 위해 그는 발 벗고 나섰다. 먼저 영도 종합사격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경을 살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창원 국제사격장과 비교해보면 영도 종합사격장은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곳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등근 원처럼 연결된 우리

그는 환경의 중요성 못지 않게 사격연맹에 소속된 사람들끼리의 돈독함도 강조했다.

“저는 ‘식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술밥을 먹는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선수, 코치, 임원 전부가 하나의 식

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곁에 있기에 힘을 낼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선수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자리를 즐긴다. 말 그대로, ‘식구’인 것이다.

“최근 소년체전을 마친 선수들과 함께 식사를 즐긴 적 있습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니 선수들의 고민과 꿈, 포부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마련해 하나 된 부산광역시사격연맹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경기, 권총을 높게 치켜들며

다가오는 전국체육대회는 이 회장이 회장을 역임한 이후 처음 맞는 대회이다. 그는 긴장과 설레는 마음을 동시에 품고 있다.

“저로서는 저희 선수들을 처음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무척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입니다.”

이상돈 회장은 결과보다 노력을 중시한다. 그는 선수들이 그 과정을 즐기고 오길 바란다.

“선수 한 명을 만드는 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고 있기에, 결과를 잘 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이 지닌 노력의 가치를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다가오는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선수들의 땀방울이 빛나길 바랍니다.”



이상돈 회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수들의 결과도 메달의 색깔도 아닌, 그들의 노력이다. 이를 빛내기 위해 그 역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부산 사격의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사격연맹 회장을 역임한 이후부터 그의 삶은 사격으로 가득 차 있다.

“최근에는 가족들과 사격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산의 많은 시민이 저처럼 사격에 매력을 느끼고, 얼마나 많은 선수가 있는지 알아주길 바랍니다. 우리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부산 사격을 이끌어 나갈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상돈 회장은 사격이 좀 더 시민친화적 스포츠가 되길 바란다.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격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체험해보니 집중력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사격을 쉽게 접한다면, 사격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돈 회장이 꿈꾸는 미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그는 선수, 코치, 임원들과 함께라면 어떤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답한다. 그는 오늘도 당차게 웃으며 부산 사격의 미래를 그려 나간다.

“부산을 사격 친화도시로 만들고,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위해 연맹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저 스스로가 그들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땀 흘려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

“당장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조금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빛날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우리는 롤러 한 가족

부산 서구청&부산광역시체육회 롤러팀

2007년 창단한 서구청 롤러팀에 이어 2024년,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부산 최초 여성 롤러팀을 창단했다. 우기석 감독의 지도하에 한술밥을 먹으며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두 팀. 다가올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며 구슬땀 흘리는 현장을 방문해보았다.



꼬꼬마였던 아이들, 어느새 능률한 선수로

서구청과 부산광역시체육회 롤러팀의 지휘봉을 잡은 우기석 감독은 중학교 3학년 때 롤러를 시작해 선수로 활약하다 1997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경기도 오산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 등에서 코치·감독직을 맡아오다 2007년 7월에 부산 서구청 감독으로 부임했고, 2024년, 부산광역시체육회 롤러팀이 창단함에 따라 부산 관내의 롤러팀을 지도하게 됐다.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 다 되어 가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우리 팀 선수들 다수는 제가 지도자 생활을 시작할 무렵 만났던 꼬마들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 친구들을 올려봐야 할 정도로 키가 컸네요. 실력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요. 선수들 모두 저를 믿고 잘 따라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노력에 걸맞은 좋은 소식도 꾸준히 들려주니, 고맙다는 말을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오랜 인연으로 이어진 감독과 선수, 가족 같은 분위기의 팀. 이는 단순히 우 감독의 정 많은 성격 덕분만은 아니다. 유소년을 전문 선수로 발탁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 나름의 철

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력보다 인성과 성실성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가끔 어린 시절 만난 선수들, 오래 알고 지낸 선수들만 편애하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곤 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죠. 지도자 생활을 하며 수많은 유소년 선수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제가 먼저 나서서 함께 운동하자고 제안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당장의 성적보다 가치 있는 건 선수의 인성과 성실성이라고 믿고 있고 선수들에게도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성실성이 바탕이 되어야 선수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고, 서로 의지하며 힘든 훈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적, 기록 향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인연이 오래된 만큼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우 감독은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릴 전국체육대회를 두고 선수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프로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에 욕심내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한 자신을 너그럽게 대할 줄 알고, 동시에 더 큰 용기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선수들, 앞으로도 파이팅!”



우기석 감독



서구청의 말형, 27년 경력의 베테랑

김민호 선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인라인스케이팅 선수로 발탁되어 27년째 선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서른여섯 살의 고참으로서 팀의 화합을 이끌며 솔선수범하고 있다.

“스케이팅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참 웃겨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학교에서 개최하는 인라인스케이팅 시합에 재미로 출전했는데, 거기서 덜컥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학교팀 감독님에게 발탁돼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와 함께 운동했던 장수철 선수도 지금 경남도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안양에 살았는데, 부산 선수들과 합숙훈련을 하게 되면서 우기석 감독님과 처음 만났어요. 그러다 2013년, 서구청팀에서 제안을 받아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트랙에서 선수들을 다독이며 훈련을 이끌어가는 김민호 선수, 그는 가정에서도 고참 선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딸아이(초 4)와 아들(초 2)도 저와 같은 인라인스케이팅 종목에서 선수로 활약하고 있어요. 1년 전부터는 함께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운 좋게 매 대회 메달을 같이 따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따면 한국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훈련장에서도 집에서든 스케이팅 생각을 그치지 않는 덕분일까, 실업팀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래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김민호 선수는 최근 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단체전에 함께 참가한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대회였습니다. 제가 이번 준비 기간 동안 사정이 있어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큰 대회를 치른 후인만큼 다음 대회인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팀 선수들은 충분히 1위 메달을 목에 걸 자격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저는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은퇴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는 저 혼자만의 기록이 아니라 동료들의 기량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주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자 합니다. 질치부심해서 전국체전에서 꼭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겠습니다.”



김민호 선수

서구청 선수단 소개



허봉

포기를 모르고 끝까지 노력하는 선수.
주장인 김민호 선수에 버금가는 기록을 보유한 에이스.



박현웅

2025년 국가대표로 발탁될 만큼 기량이 뛰어난 선수.
제106회 전국체전 1,000m 종목의 유력한 우승 후보.



안준빈

서구청 선수단의 막내,
주장인 김민호 선수와는 12살 차이 나는 띠동갑 동생.
선배들을 잘 따르고 개인 훈련에도 열심이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길

부산광역시체육회 롤러팀의 주장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전주애 선수. 지금의 밝은 모습과 달리 선수 생활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초등학생 때 처음 롤러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집에서, 특히 아버지가 운동부 활동을 반대하셨어요. 친가 쪽에 딸이라곤 저 뿐이라 운동선수로 진로를 정하게 둘 수 없다는 거였죠. 초등학생 때는 그런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했는데, 중학교에 진학하고서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뜻을 꺾기는 쉽지 않았다. 아버지가 내건 조건은 ‘성적’이었다.

“전교 10등 안에 든 성적표를 조건으로 운동을 허락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조건이었죠. 그래도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결과적

으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17년째 선수 생활을 행복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주애 선수

다른 선수들에 비해 다소 늦은 시작 탓에 격차를 메우기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타고난 끈기와 성실함으로 기량을 끌어올린 전주애 선수. 그는 최근 문화체육부장관배 전국 대회에서 3개 메달을 획득하고 다가오는 전국체육대회를 준비 중이다.

“남들보다 시작이 늦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고, 트랙 위에서 인생의 반려자도 만날 수 있었어요. 스케이트는 저한테 스포츠, 직업 그 이상의 존재예요. 그렇지만 이제 은퇴를 생각할 나이라,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가 제 마지막 전국체전이 될 것 같아요. 팀 내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크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저하가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개인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남다른 동료애를 드러낸 전주애 선수는 은퇴를 앞두고 각오가 남다르다.

“이제는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신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감독님과 팀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에서 동료들에게 멋진 선물을 선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전국체전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들.”

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단 소개



이혜원

전주애 선수의 오랜 친구.

마른 체구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에너지를 발산하는 노련미 넘치는 선수.



황지수

2025년 부산광역시체육회팀이 영입한 단거리 스페셜리스트.

서른 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막내 생활을 하게 됐지만, 특유의 과묵한 성격으로 팀의 균형을 잡아주는 선수.



창단 1년 만에 이뤄낸 팀워크와 금메달

부산체육중학교 사이클부



부산체육중학교 사이클부는 2024년 2월 창단된 새내기팀이다.
하지만 베테랑 지도자, 뛰어난 기량의 선수들이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운 날씨에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에 집중하는 선수들을 보니
금메달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해성처럼 나타난 여자 중등부 강팀

부산에는 사하중학교에 남자 사이클, 부산체육중학교에 여자 사이클 중등부가 있다. 부산체중 사이클부는 지난해 2월 감독 및 지도자, 선수 4명으로 시작했다. 선수는 많지 않지만 각자 기량이 모두 뛰어난 최정예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준호 지도자는 사이클 전공자로 실업팀, 대학팀 등 선수 지도를 15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다.

“팀 역사는 길지 않지만 창단 이전에도 선수들은 연맹 소속 등으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소년체전 후 한 명의 선수가 더 들어와서 현재는 2학년 3명, 1학년 2명으로 총 5명이 훈련하고 있죠. 중등부는 단거리, 장거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훈련하지는 않지만 각자 어느 쪽에 장점이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고교 진학 후 진로를 세부 결정하는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2025 소년체전 단체추발 1위 쾌거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이클 종목은 200m 기록, 500m 독주, 개인추발, 단체추발, 단체스프린트로 총 5개이다. 남자 중등부는 스크래치 종목이 추가되어 6개가 된다.

올해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체중 사이클부가 금메달을 수상한 종목은 단체추발 경기이다. 팀 창단 1년 만에 탄 금메달이다 보니 대회 관계자들에게 많은 화제가 되었다. 금메달 소식에 이준호 지도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궁금했다.

“선수 지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사실 금메달 소식 자체에 가슴이 울컥하지는 않았어요. (웃음) 오히려 대회 전 훈련 과정에서 더 큰 감동을 느끼곤 하죠. 사이클 특성상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상황에서 운동을 해야 하니, 선수들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훌륭한 사이클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에 선수들의 컨디션을 잘 살피고, 부상을 입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지도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훈련량을 평소보다 좀 더 늘리고, 스피드 훈련에 상당히 집중했다. 또한 근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 시에는 자전거 기어를 실제 대회보다 무겁게 조정해 운동했다고.

홍덕기 감독은 전국소년체육대 직전에 다른 큰 대회가 또 있어서, 전략이 필요했다고 떠올렸다.

“소년체전 직전 경북 영주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가 열렸어요. 소년체전 일정과는 불과 2주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았죠. 이사장배 대회가 끝난 후 부산에 왔다가 소년체전 사이클 대회가 열리는 양양으로 가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이준호 지도자

홍덕기 감독



영주에서 바로 양양으로 이동해 현지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사이클 경기장마다 바닥 재질, 경사도가 조금씩 달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기장 적응 훈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인 의지가 선수 성장의 핵심

지난해 부산체중 사이클부는 창단 2개월 만에 ‘제41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에서 단체추발 1위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준호 지도자는 팀이 만들어진 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팀워크가 중요한 경기에서 성과를 이뤄 너무 기쁘다고. 첫 출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선수 간 호흡을 집중적으로 맞춰나가는 훈련이 유효하기도 했지만, 선수들의 기본기가 탄탄할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체육회 등 유관기관 및 부모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서 가능했다고 설명했

다. 같은 종목에서 202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2위, 올해 전국 소년체육대회 1위를 한 것도 지도자로서 모두 잊지 못할 경기들이라고 했다.

흥덕기 감독, 이준호 지도자에게 지면을 통해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쉽지 않은 종목을 선택해 늘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기특해서 칭찬부터 하고 싶습니다. 훈련하면서 불편하거나 부족한 게 없는지 늘 살피고 있으니,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려워하지 말고 이야기해 주었으면 하네요. 선수 나이가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선수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지도자가 이끄는 훈련에 따라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스스로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mini interview

곽정록 부산체육중학교 교장

우리 사이클 선수들은 그야말로 한 명 한 명이 최고의 기량을 가진 어벤져스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단 후 짧은 기간에 최고의 기량을 끌어올린 우리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노력은 정말 대견합니다. 학교에서 먼 훈련장을 매일 오가면서 힘든 운동을 이겨내고 좋은 성과를 내는 우리 선수들을 보면 정말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 2학년 시절부터 BMX 종목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기량과 시야를 더 넓히기 위해 5학년 때 호주 유학을 떠나 BMX, 트렉 종목을 병행해서 배웠습니다. 3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올해 귀국한 후에는 사이클 선수로 전향해 운동하고 있어요. 제가 부산체중에 입학한 건 고향이 여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선배 언니, 오빠들이 추천을 많이 해 줬고, 사이클을 전문적으로 잘 훈련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전 순발력이 좋은 편이라 단거리 종목이 특히 자신 있는데요, 500m 독주와 원랩(333m) 종목에서 기록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올해 4월 나주에서 열렸던 '제42회 대통령기 사이클대회'입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첫 사이클대회이기도 했고, 500m 독주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대회 신기록도 세워서 뿌듯했어요.

사이클은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그대로 보이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조금씩 한계를 뛰어넘으며 도전해나갈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예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신체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가 세운 목표를 이뤄나가는 선수가 되려고 합니다.



석아린 선수(2학년)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로 지난해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취미로 자전거를 타다가 부산체중 사이클부에 들어오

기로 결정한 후 몇 달간 아버지의 특훈을 받았어요. 가족 중 언니도 선수 생활을 잠시 했지만, 현재는 다른 쪽으로 진로를 정했어요.

전 중·장거리 기록이 좋은 편인데요, 1km 개인추발, 3km 스크래치 종목을 좋아하고 결과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 5월 영주에서 열렸던 '제27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사이클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1km 개인추발 종목에서 개인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서 좋았습니다.

사이클은 기록이 단축될 때마다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운동이에요. 경기 중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지나친 긴장인데요, 저는 많이 떨릴 때 손으로 코끝을 잡고 살짝 흔들어주는 저만의 비법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기량이 잘 발휘되는 1km, 3km 종목에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난아 선수(2학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신규 참가팀 소개

첫 출발, 전국을 향한 힘찬 질주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무대에 부산의 신규 창단 7개 팀이 첫발을 내딛는다. 개최지 불참 종목에 해소하고 종목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이 팀들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굳은 각오와 열정을 품고 있다. 이들의 출전은 단순한 참가를 넘어 부산 체육의 저력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다가올 전국체육대회에서 이들이 펼칠 도전은 부산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전국이 주목할 새로운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핸드볼 HANDBALL

팀 영도여자고등학교 여고부 감독 전하경 코치 박효진



탁구 TABLE TENNIS

팀 개성고등학교 여고부

감독 이한홍

지도교사 박주현



강다원



이정민



김예린



지유안



양해린

야구소프트볼 SOFTBALL

팀 부산교육대학교 여대부

감독 최미진



조서연, 손정현, 김은유, 박남은, 안예원, 유승아, 장수민, 오혜나, 한효주, 김영서,
하윤지, 김수연, 정희수, 허서영, 박서연, 이수민, 이주은, 박주현, 김서우, 조주현

배구 VOLLEYBALL

팀 동서대학교 남대부 감독 양동석



김시형



정연수



오승윤



최세영



진재혁



김태현



문현준



정현규



정성현



남지훈



김정현



정찬빈

하키 HOCKEY

팀 부경고등학교 여고부 감독 김태경

김리사

김정윤

김주영

김지윤

류태경

박보민

박지호

안세이

유현서

윤도은

이가영

정아원

차서은

최민혜

최수빈

배구 VOLLEYBALL

팀 동의대학교 여대부

감독 박찬호

코치 최유진



배지혜



박신지



장지윤



박수연



유다정



이현정



오연주



김지수



신서영



이은비



김소현

소프트테니스 SOFTTENNIS

팀 부산체육고등학교 여고부/남고부

감독 박세훈

여고부

이수빈

이서하

최다은

이지수

한채민

박서윤

남고부

이효석

이호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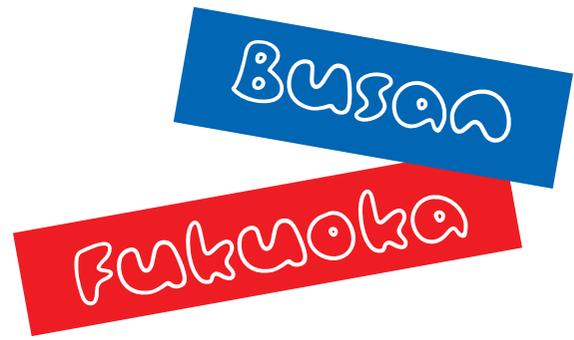
조민유

오승혁

김성윤

김범준

2025 부산-후쿠오카 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해양도시 부산은 청소년들의 함성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 ‘2025 부산-후쿠오카 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가 180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진 것이다. 이 대회는 부산광역시와 일본 후쿠오카시가 매년 번갈아 개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교류 행사로, 2019년 중단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다. 올해는 배구와 요트 2개 종목에서 양 도시의 청소년들이 기량을 겨루며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다졌다.



부산과 후쿠오카 청소년, 스포츠로 하나되다

먼저 성지고등학교에서는 88명의 선수가 참가한 배구 경기가 열렸다. 네트를 가로질러 공이 오갈 때마다 우렁찬 응원과 환호가 터져 나오며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남자배구 단체전에서는 후쿠쇼고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여자배구 단체전에서는 경남여고와 남성여고가 연달아 2세트를 따내며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였다.

같은 날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는 푸른 바다를 가르며 요트경기가 펼쳐졌다. 트라이앵글 코스로 진행된 이번 경기는 총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요트 TOPAZ 부문에서는 후쿠오카의 미야마에 사쿠아쿠라모토 유우 선수가 1R, 2R, 3R 모두 선두로 들어오며 압도적인 기량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나카노 모모코마츠다 유즈키 선수가 그 뒤를 이었다. 요트 LASER PICO 부문에서는 히사마츠 시마 선수가 안정된 기량을 선보이며 단숨에

1위에 올랐다. 가장 치열한 경쟁은 요트 OPTIMIST 부문에서 펼쳐졌다. 김민성 선수가 1R 4위, 2R 3위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종합 1위를 기록했으나, 2·3위 자리를 두고는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다. 장민관과 백가연 선수는 1R에서 각각 7위와 8위로 다소 부진했으나, 끈이어 열린 2R에서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하며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결국 최종 순위는 김민성, 장민관, 백가연 선수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하며 부산 선수들의 저력을 보여주었고,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감을 높였다.

180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청소년들은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미래 프로선수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초석을 다졌다. 부산에서 제주도보다 더 가까운 이웃 도시 후쿠오카의 청소년 선수들과 함께한 이번 무대에서는, 양국 선수들의 뜨거운 스포츠 열정이 한여름의 태양마저 잊게 만들었다.



스포츠를 넘어 문화까지 함께하는 축제

이번 행사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확장되었다. 참가 선수들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을 체험하며 지역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한층 높였다. 또한 양 도시 청소년 선수들의 가치관 이해와 대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20일에는 영화의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영화의 거리와 용두산 공원을 방문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에서 부산 고유의 맛을 체험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전문 통역인 20명이 배치되어 대회 진행을 지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교류는 7년 만에 재개되는 대회이자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미래세대가 국제적 감각과 협력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장이었다”며 “양 도시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앞으로도 후쿠오카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청소년 스포츠 외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1992년부터 이어져 온 양 도시 간의 대회는 단순한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넘어, 문화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앞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교류의 폭을 넓히며, 문화-스포츠 강국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장으로 꾸준히 성장해 가길 기대한다.



2025 부산-후쿠오카 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

배구(남자단체전)

구분	부산 팀명	스코어			후쿠오카 팀명
		세트	점수	세트	
제1경기	동성고등학교	0	10:25 15:25	2	후쿠쇼고등학교
제2경기	성지고등학교	2	25:15 19:25 15:09	1	후쿠쇼고등학교

배구(여자단체전)

구분	부산 팀명	스코어			후쿠오카 팀명
		세트	점수	세트	
제1경기	경남여자 고등학교	2	25:10 25:11	0	후쿠오카 여자고등학교
제2경기	남성여자 고등학교	2	25:19 25:16	0	후쿠오카 여자고등학교

요트(TOPAZ)

순위	성명	소속명	1R	2R	3R	계
1	미야마에 사쿠야 쿠라모토 유우	후쿠오카	1	1	1	3
2	나카노 모모코 마츠다 유즈키	후쿠오카	2	2	4	8
3	노현승, 박찬열	부산	3	3	3	9
4	추지민, 김선우	부산	4	4	2	10

요트(LASER PICO)

순위	성명	소속명	1R	2R	3R	계
1	히사마츠 시마	후쿠오카	1	1	3	5
2	미야마에 사쿠야	후쿠오카	3	2	2	7
3	사토 아이리	후쿠오카	6	3	1	10

요트(OPTIM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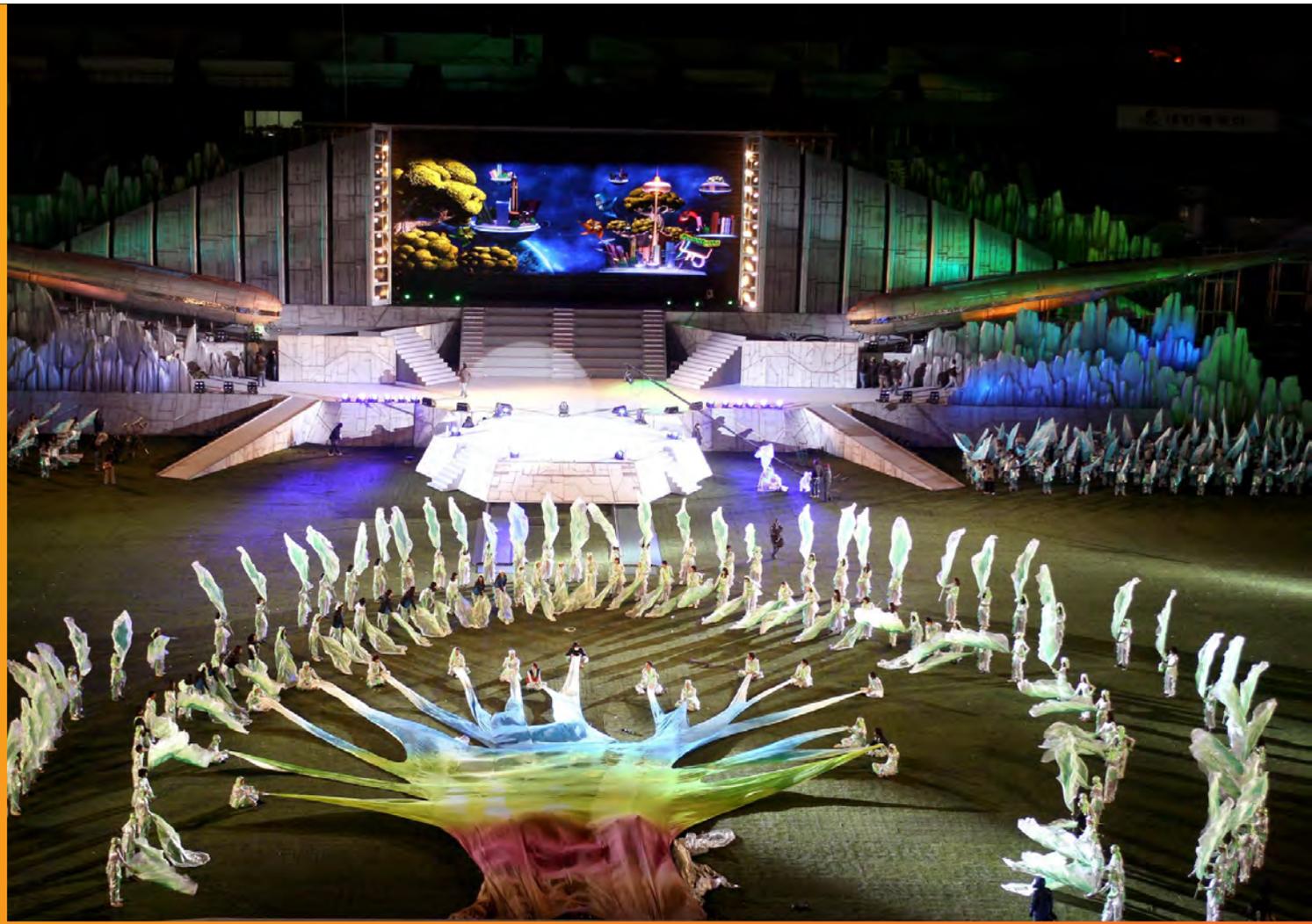
순위	성명	소속명	1R	2R	계
1	김민성	부산	4	3	7
2	장민관	부산	7	1	8
3	백가연	부산	8	2	10



전국체육대회, 변화를 넘어 진화의 길로

서울올림픽 이후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쏟아지며 전국체육대회의 존재감은 흔들렸지만, 대회는 여전히 시대의 얼굴을 담아내며 변화해 왔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전국체전은 축제의 무대이자 한국 스포츠 진화의 축소판으로 굴곡진 여정을 걸어갔다.

참고자료,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



서울올림픽 이후, 전국체전의 그림자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전국체전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았다. 야구·축구·농구·배구 등 인기 구기 종목들이 잇달아 프로화의 길을 걸었고, 1988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아시안 게임,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국내에서 연이어 개최되면서 전국체전은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개최 시·도에서만 일시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뿐, 다른 지역에서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전국적인 화제성과 국민적 관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전국체전의 빛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풀리지 않는 오래된 숙제들

그렇다고 전국체전이 과거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었다. 매년 지적되는 과도한 재정 지출, 사후 활용이 어려운 신축 경기장, 경기도·서울 등 인구 대도시의 종합 순위 독식, 그리고 무관심해진 시민들의 시선이 그대로 반복됐다.

올림픽보다 종목 수는 많고 참가 인원도 2만 명을 훌쩍 넘겼지만, 대회 기간은 고작 일주일. 짧은 일정 속에서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았다. 종합순위에 집착한 각 시·도의 '메달 경쟁'은 선수 스카우트 전쟁으로 변했고, 몇 년마다 소속이 바뀌는 '철새 선수'들이 등장했다. 과거 고향의 명예를 걸고 뛰던 향토애는 퇴색했고, 원로 체육인들의 한탄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은 여전히 이어졌다. 경기 운영의 정확성, 선수단 편의, 숙소와 식단, 교통과 날씨까지 완벽히 맞아떨어져야 '성공한 종합경기대회'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해법은 뚜렷하지 않았다.



개회식의 변신: 카드섹션에서 아이돌 공연까지

전국체전의 개회식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1970~80년대까지 개회식의 하이라이트는 학생 수천 명이 만들어내는 카드섹션과 매스게임이었다. 대형 스탠드를 가득 메운 관중과 동원된 학생들의 화려한 장면은 그 자체로 '국민 축제'를 상징했다. 그러나 1988 서울올림픽 이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소도시들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새로운 방식이 모색됐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개회식 무대는 첨단 기술과 도시 정체성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 ▶ 2007 광주 전국체전: '빛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레이저와 광기술로 무대를 장식했다.
- ▶ 2008 여수 전국체전: 물과 불기둥, 거북선과 우주선 점화 세리머니가 어우러졌다.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장미란·이용대 등이 출전하며 흥행을 이끌었다.
- ▶ 2009 대전 전국체전: 열기구를 탄 대한체육회장이 하늘에서 경기장을 내려다보는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 2011 고양 전국체전: 사상 최초로 호수공원 광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성화를 경인아라뱃길과 체트스키로 봉송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돌 스타의 개회식 출연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됐다. 2010 진주 전국체전에서는 시크릿·SG워너비 등이 폐회식을 콘서트장으로 만들었고, 2012 대구 전국체전에서는 싸이가 '강남스타일' 열풍 속에 등장해 5만 5천 관중을 모았다. 그 순간부터 아이돌 공연은 전국체전 개회식의 단골 프로그램이 되었다.

스타 선수의 힘: 박태환에서 손연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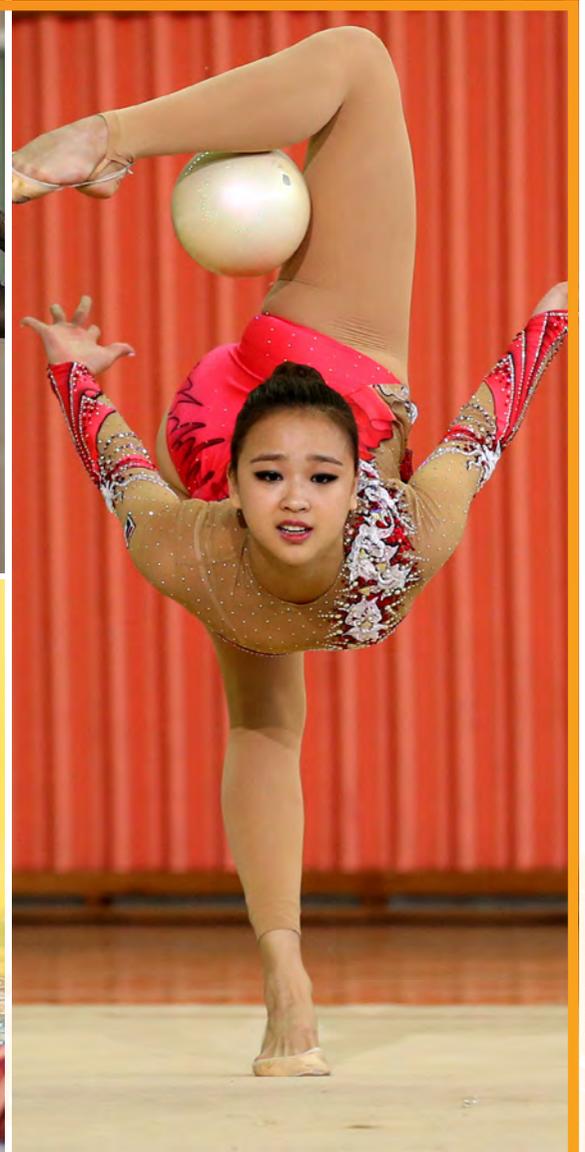
전국체전의 흥행 여부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참가 여부에 크게 좌우됐다. 올림픽·아시안게임 직후에 열린 전국체전은 '스타 선수'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관중의 발길을 모았다.

2008 여수 전국체전에서는 박태환, 장미란, 진종오, 이용대 등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총출동해 '별들의 잔치'를 펼쳤다. 박태환은 자유형 5관왕에 오르며 MVP를 차지했고, 장미란과 사재혁, 진종오 역시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2009 대전 전국체전에서는 마라토너 이봉주가 은퇴 무대를 금메달로 장식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같은 대회에서 '육상 열쌍 스프린터' 김하나는 200m와 400m 계주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MVP로 떠올랐다.

2011 고양 전국체전에서는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등장해 비인기 종목의 이미지를 바꿔놓았다. 전국체전이라는 무대가 여전히 젊은 스타들을 발굴하고, 신기록이 쏟아지는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전국체전, 변화의 갈림길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전국체전은 화려한 무대와 스타 선수들의 등장,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명맥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재정 부담', '관중 동원 한계'라는 오래된 숙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개최 도시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무대로 진화했다. 2010년대 후반에는 드론을 활용한 성화 점화, IT-미디어 아트 공연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며, 전국체전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자 몸부림쳤다.

전국체육대회는 1920년 조선체육회 창립과 함께 시작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온 대한민국 최대의 종합체육대회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의 변화는, 전국체전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에 맞는 옷'을 입으려 애써온 과정이었다. 비록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첨단 기술과 대중문화의 결합, 스타 선수들의 감동 드라마,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 속에서 전국체전은 여전히 살아 움직였다. 전국체전은 시대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그 거울은 앞으로도 한국 체육의 새로운 도전과 진화를 비출 것이다.

격투기의 끝판왕 주짓수

또지코리아 만덕

JIU-JITSU



주짓수는 체격 차이와 상관없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기술의 숙련도가 중요하고 또 그런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라’는 말처럼 또지코리아 만덕 회원들은 끈끈한 유대감으로 건강한 내일을 함께 그리고 있다.

Q 또지코리아 만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현재 초·중·고 50여 명, 성인 50여 명이 함께 주짓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활체육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얻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파이바컵 주짓수대회에서 초등부와 중·고등부 종합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1,000명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우승한 거라 정말 기뻐요.

Q 주짓수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주짓수식 몸풀기부터 시작해서 기술 연습, 스파링 순으로 운동합니다. 스파링은 5분, 5라운드로 진행하고요. 학생들은 종종 레크레이션으로 훈련을 마무리할 때도 있는데 릴레이 달리기, 옆드린 상태에서 휘슬 소리에 맞춰 빠르게 일어나서 달리기 같은 크로스핏에서 하는 운동을 주로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룰을 익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짓수 룰이 엄청 복잡해요.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룰을 잘 알면 전략을 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훈련들을 월 단위로 정리해 밴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합에 다녀온 후에는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훈련을 추가하기도 해요.

Q 주짓수 시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생활체육대회에서는 비경력자는 비경력자끼리, 실력자는 실력자끼리 경기합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 벨트 색깔은 물론이고 학년, 몸무게도 맞춰요. 비슷한 실력끼리 겨루기 때문에 격차가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합에 자주 나가려고 합니다. 익숙한 상대와 스파링을 100번 하는 것보다 시합에 한 번 나

가 보면 실전에서 느끼고 배우는 게 훨씬 많거든요.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운동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지고요.

Q 주짓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주짓수라는 운동을 사랑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자기 신체에 맞는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가는 꾸준함도 필요해요.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유명 선수가 2~3시간 동안 자신의 특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기술을 배우는 건 물론이고 같이 배우는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엄청난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Q 김진성 지도자님의 주짓수 입문 계기와 기억에 남는 대회가 궁금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일본 프라이드 격투기를 보고는 주짓수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주짓수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입문하게 됐습니다. 현재 16년 차로 블랙벨트 2단입니다. 2010년에 경기도 부천에서 있었던 아부다비 선발전이 기억에 남습니다. 화이트벨트와 블루벨트 혼합 경기였고 -76체급과 +76체급으로 구분되어 경기가 진행되었어요. 저는 1년 정도 수련해서 화이트벨트로 +76체급에 참가하였습니다. 거기서 4강까지 오른 선수를 선발하여 3개월 뒤 아랍에미리트 선수와 경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선발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화이트벨트 중 4강까지 오른 선수는 저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준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Q 주짓수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배울수록 더 재미있어진다든 겁니다. 예를 들면 화이트벨트인 사람과 블랙벨트인 사람이 간단한 기술을 배우면 처음에는 똑같이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디테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화이트벨트는 상황이 바뀌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반면 블랙벨트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블랙벨트는 수많은 상황이 카테고리화되어 있어서 기술도 힘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블랙벨트가 되기까지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같은 운동을 오랫동안 하면 지칠 수도 있지만 배울수록 수싸움이 치열해져서 점점 재밌어집니다. 바둑도 고수인 분들의 경기가 재밌는 것처럼요. 타격이 없어서 오늘 에너지를 100% 쓰기도 다음 날 또 할 수 있으니 칼로리 소비 면에서도 좋은 운동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주짓수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에서 중요한 건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운동하는 분들이 훈련 후 웃으면서 집으로 가시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제 경험을 많이 나눔으로써 주짓수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주짓수는 안전한 운동이니 주변 체육관에서 접해보시고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mini interview

주짓수 홍보 대사, 박어진 회원

또지코리아 만덕에서 2024년 11월부터 주짓수를 훈련하고 있는 박어진입니다. 30대 후반에 접어들다 보니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건강을 챙기고 싶다는 생각에 어떤 운동을 할지 알아보다가 주짓수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 UFC, K-1 같은 종합 격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잘하는 선수 대부분이 기본으로 주짓수를 했더라고요.

주짓수를 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달리기와 이런저런 운동으로 나름대로 기초 체력을 늘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짓수를 시작하니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런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생을 꽤 했는데 함께 훈련하는 분들이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알고 보니 주짓수 고수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훈련 시간 외에 따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태권도, 합기도, 공수도도 했는데 품새를 반복해서 외운다든지 혼자서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짓수도 물론 혼자 연습할 수 있지만 파트너가 있어야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유대감도 생기구요. 드릴이라고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10~15분 정도 하는 게 있어요. 앞구르기, 뒤구르기 등 전신을 쓰는 훈련인데 체력은 그것만 해도 느끼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화이트벨트라서 이스케이프 훈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라쓰가드라는 기술이 그나마 자신 있습니다. 저 같은 경량급이 체급이 위인 사람과 스파링할 때 유용한 기술이에요. 첫 스파링 상대가 여자 고등학생이었는데 저는 5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계속 탭만 쳤어요. 그때 기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꾸준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았고, 주짓수라는 운동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꾸준히 해서 주짓수라는 운동이 얼마나 좋은지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또지코리아 만덕 주요 연혁

- 2023년 파이바컵 주짓수대회 초등부 종합 우승
- 2024년 파이바컵 주짓수대회 중·고등부 종합 우승
- 2024년 부산오픈 주짓수대회 학생부 및 성인부 종합 우승
- 2024년 생활체육 주짓수대회 트리플 종합 우승(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
- 2024년 내셔널 주짓수 오픈대회 트리플 종합 우승(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



2025 부산 국제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

세계 최정상 선수들의 열전 속 성료

제5기 부산스포츠기자단 김류경

비치발리볼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두 명씩 한 팀을 이루어 모래 위에서 펼치는 경기 방식이 독특한 매력을 지닌 스포츠이다. 바람과 햇빛, 기온 등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매번 다양한 변수가 발생해 더욱 흥미로운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2025 부산 국제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광안리 해수욕장 특설경기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국제배구연맹(FIVB)이 공인해 국제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는 ‘FIVB Beach Pro Tour Futures 시리즈’에 속하는 대회로, 전 세계 12개국 28개 팀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상위 랭킹 12개 팀이 16강 본선에 자동 진출하고 16개 팀이 남은 4개의 본선 진출권을 놓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브라질, 미국, 독일, 일본 등 비치발리볼 강국의 대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였으며, 사람들은 연일 이어진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관람석은 물론이고 해변 곳곳에서 경기를 지켜본 부산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도심에서 이국적인 스포츠 축제를 만끽하는 색다른 경험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대표팀과 더불어 고등학교 및 대학교 팀이 참가하여 다양한 선수층의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었다. 8월 14일, 개막식에서 오창희 한국비치발리볼협회장은 “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영광이고 앞으로 광안리 국제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를 글로벌 이벤트로 성장시킬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수많은 경기 끝에 8월 17일에는 일본과 노르웨이의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일본은 마츠모토 렌, 마츠모토 논 선수가 한 팀을 이루었으며 노르웨이는 니나 파블로바, 수니바 헬란드-한센 선수가 팀을 이루었다. 일본은 자매가 팀을 이뤄 조직력과 팀워크가 장점이었으며, 노르웨이 선수들은 큰 신장과 디그 능력이 장점이었다. 1세트는 노르웨이가 공격적인 플레이로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2세트에서는 일본이 좋은 플레이로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혀 다른 세트를 보여준 두 팀은 치열한 접점을 벌였으며 그 결과 일본이 1위, 노르웨이가 2위, 체코와 바누아투가 공동 3위를 기록하였다. 9~12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대표팀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 외에도 드론 쇼, 라이브 공연, 패들보드 및 요트투어 등이 함께 진행되어 관람객들은 광안리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다양한 이벤트를 즐겼다.

‘2025 부산 국제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닌 스포츠와 관광, 문화가 어우러지는 부산형 스포츠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생활체육의 메카로 높이 날아오르는 부산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미래의 줄넘기 선수들을 위한 첫걸음

제8회 부산광역시장배 줄넘기대회

제5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정상우

지난 8월 19일, 기장체육관에서 '제8회 부산광역시장배 줄넘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학생의 기초체력 증진을 목표로 줄넘기 운동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의 열정적인 경기가 이어지며 대회의 의미를 더욱 높였다.





구분	16세 미만	16세 이상
순위	1위~5위	1위~5위
명칭	주니어 부산광역시 대표	부산광역시 대표
나이 기준	2010. 1. 1. 및 이후 출생자	2009. 12. 31. 및 이전 출생자

이번 대회는 ‘부산광역시장배 줄넘기대회’이자 ‘2026년 부산광역시 대표 선발을 위한 랭킹포인트 부여 2차 선발전’으로 치러져 한층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대회는 마스터즈부와 일반부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800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다.

경기 종목은 유치부 초등부, 중·고·일반부가 각각 다른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개인전에 중복 출전이 불가하여 양발모아뛰기, 30초번갈아뛰기, 30초이중뛰기 중 한 종목만 참가할 수 있었다. 다만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3중뛰기는 예외적으로 개인전 중복 종목으로 허용됐다. 반면 중·고·일반부에서는 개인전 중복 출전이 가능했으며, 마스터즈부 역시 여러 종목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운영돼 참가자들은 철저한 준비 속에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이번 ‘제8회 부산광역시장배 줄넘기대회’는 개인전, 2인전, 10인 스피드릴레이 등 종목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시상했다. 금·은·동상은 기준 범위 내의 기록이라면 수여되었으며, 대상은 금상 범위 내 상위 5팀을 선정해 수여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대상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한편, 평소에 자신이 쌓아온 훈련의 결과물을 보기 위해 금·은·동상을 목표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순히 승패를 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대회의 진정한 의미를 빛나게 했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통해 자신의 체력을 점검하고, 끈기와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특히 2026년 부산광역시 대표 선발을 위한 랭킹 포인트가 부여된 이번 대회는 경쟁만큼이나 동료들에 대한 응원과 위로가 돋보였다. 선수들은 각자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었다.

한편 8인 이상 참가한 마스터즈 경기의 경우, 1위부터 8위까지 순위에 따라 랭킹포인트가 부여된다. 반면에 ‘2025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줄넘기대회’, ‘제8회 부산광역시장배 줄넘기대회’, ‘제15회 부산광역시줄넘기협회장배 프리스타일 줄넘기대회’에서 치러지는 1·2·3차 선발전에서 개인별로 획득한 랭킹포인트를 합산해 상위 5명을 부산광역시 대표로 선발한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어린 선수들이 기초체력을 기르며 지속적으로 줄넘기 운동을 즐기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작은 힘으로 큰 산을 제압한다
실전형 그래플링 무술

주짓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무술 중 하나인 주짓수.
유연함을 바탕으로 한 아크로바틱한 관절기와 조르기.
상대방의 힘을 역으로 이용해 역전하는 경기를 보고 있다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주짓수의 역사

고대 일본, 전쟁이 지속되던 시대 무사들은 전투 중 무기를 잃고 적에 맞서는 경우를 대비해 관절기와 조르기를 기반으로 하는 무술인 유술을 만들었다. 근대에 들어 무술의 스포츠화가 이뤄지던 시점에 유술은 살상 기술을 배제한 유도로 분화되었다. 유도 선수로 활동하던 마에다 미츠요는 브라질로 이주해 카를로 그레이시에게 유술을 전수했는데, 카를로의 막내동생인 엘리오 그레이시가 브라질 고유 무술인 발리 투도와 유술을 결합해 주짓수를 창시했다.

1925년, 리우데자네이루에 세계 최초 주짓수 아카데미가 개관하면서 주짓수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UFC 첫 대회에서 주짓수를 수련한 ‘호이스 그레이시’가 우승하면서 주짓수의 실전성이 입증되었다.

2010년, JJIF에서는 단일 종목으로 네와자(Newaza)를 출범했는데, 이를 계기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짓수의 국제화 및 올림픽화가 추진됐다. 국제 규격이 확립되고 체육 대회 종목 채택이 논의되다가 2018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네와자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주짓수의 종류

주짓수는 파이팅, 듀오, 네와자 총 세가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네와자(Newaza)이다.

주짓수의 하위 종목

• Fighting(파이팅) 타격 겨루기 • Duo(듀오) 2인 창작 품새 • Newaza(네와자) 그래플링 겨루기

Fighting(파이팅)

타격, 테이크다운, 굳히기 등이 혼합된 시합으로 세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서로 거리를 둔 채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타격기가 허용되는 단계다. 이후 서로의 옷깃을 잡거나 클린치 상태에 들어가면 2단계로 돌입하는데, 이때는 타격이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을 테이크다운시켜 득점한다. 마지막 3단계는 두 선수 중 한 명이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관절기 및 초크로 상대방에게 기권을 받아내야 한다. 각 단계는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시합 양상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것으로 선수들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원하는 단계에 돌입하거나 빠져나오는 등 전략적으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

3단계에서 서브미션으로 기권을 선언한 경우, 앞선 득점에 관계 없이 승부가 결정된다.

Duo(듀오)

두 사람으로 구성된 팀 단위의 창작 품새 경합이다. 열두 가지 구체적 상황 중 한 가지 상황을 심판이 지시하면 그에 맞는 호신술을 선보이는 경기다. 선수들의 순발력, 운동신경, 동작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이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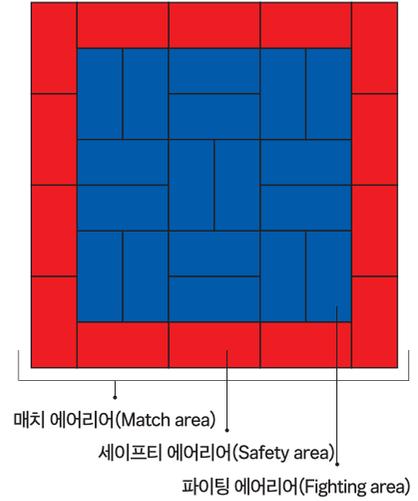
Newaza(네와자)

어떤 타격도 허용하지 않고 그라운드 공방전만이 인정되며 경기 중 득점과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는 서브미션으로 승패가 나뉜다.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경기양식이며 한국에서는 브라질리언 주짓수 단체에서 주관한다. 아시안게임 및 국내대회에서는 네와자 단일종목을 개최하고 있다.

경기 규칙

경기장 규격

- 경기장은 파이팅 에어리어와 세이프티 에어리어로 나누고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파이팅 에어리어는 6m×6m 구역으로 선수들의 경합이 이뤄진다.
- 세이프티 에어리어는 파이팅 에어리어를 둘러싼 폭 1m의 구역으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하는 여유 공간이다.
- 매치 에어리어는 파이팅 에어리어와 세이프티 에어리어를 합한 경기장 전체를 말하며 8m×8m 규격이다.



경기시간

- U10 1.5분 • U12, U14, U16 3분 • U18, U21, 일반부 5분

벨트 승급 순서



체급(일반부 기준)

- 남성 -56kg, -62kg, -69kg, -77kg, -85kg, -94kg, +94kg • 여성 -45kg, -48kg, -52kg, -57kg, -63kg, -70kg, +70kg

점수체계

- 테이크다운 상대를 매트 위로 넘어뜨리는 기술, 2점
- 스윙 하위포지션에서 상위포지션으로 전환, 2점
- 가드패스 상대의 방어를 뚫고 골반을 지나 사이드 포지션 또는 남북 포지션으로 이동, 3점
- 마운트, 백 컨트롤, 백 마운트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포지션, 각 4점

※ 모든 기술은 3초 이상 유지해야 점수 인정

금지 기술

- 기도 압박 팔꿈치로 상대의 기도를 압박하는 행위는 반칙으로 간주
- 소관절 잡기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잡는 행위 금지(손목·발목은 허용)
- 가위치기 유도 기술인 가위치기는 부상 위험이 커 금지함
- 전 연령 공통 금지기술
 - 슬램(가드나 서브미션을 잡고 있는 상대를 들어 바닥으로 매치기, 머리를 직선으로 내려 꽂기)
 - 초크 없이 척추 꺾기(트위스터/넥클랭크)
 - 시저스테이크다운(가위치기)
 - 손가락 꺾기(손가락을 잡아 비틀기, 꺾기, 뒤로재치기, 손가락을 몇 개를 잡든 잡는 건 상관 없음)
 - 싱글렉 테이크다운 시 밖으로 나온 상대 벨트를 잡고 머리를 바닥에 내려찍기
 - 스플렉스 시도 시 머리나 목이 먼저 바닥에 닿을 경우는 금지(스플렉스기술 시도는 반칙이 아님)

HOW TO JIU-JITSU

오모플라타

‘오모플라타’는 견갑골을 뜻하는 포르투갈어로 이름 그대로 상대의 어깨 관절을 압박하여 항복을 받아내는 기술이다. 자신의 몸과 다리를 지렛대로 사용해 상대의 팔꿈치와 어깨 관절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핵심.



클로즈 가드

‘클로즈 가드’는 주짓수에서 가장 기초적인 가드 포지션으로 자신의 양쪽 다리를 상대방 허리 뒤로 감고 발목을 서로 교차해 걸어잡는 동작이다. 상대가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도록 해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데, 특히 서브미션 기술이나 파운딩 기술을 봉쇄하는 데 유효하다.



플라워 스위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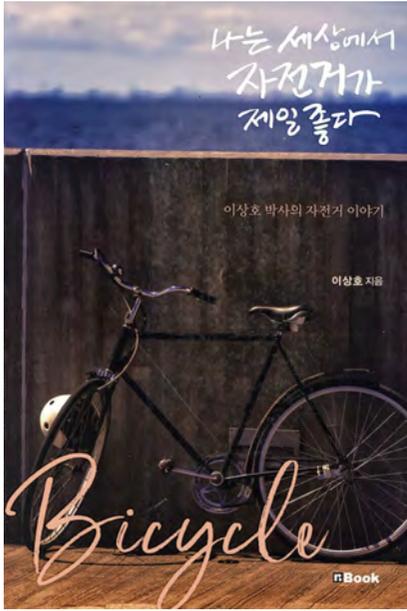
‘플라워 스위프’는 대표적인 스위프(Sweep) 기술로 꽃이 피어나듯 몸을 회전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상대의 무게중심과 지지점을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이다. ‘클로즈 가드’ 상태에서 상대방의 팔 한 쪽과 도복 깃 또는 목덜미를 강하게 잡아 당겨 무게 중심을 무너뜨린다. 이후 상대의 한쪽 다리를 감싸거나 햄스트링을 이용해 들어올리며 포지션을 역전한다.



국내 최초의 자전거 백과사전

「나는 세상에서 자전거가 제일 좋다」





저자 이상호 출판사 엔북(nBook)

“신은 인간이 힘든 인생길에서 수고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구로 자전거를 만들었다.”

- 파우스트 코피

국내 최초의
자전거 백과사전

자전거는 평등하다.
자전거는 균형이다.
자전거는 친환경이다.
자전거는 혁명이다.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자전거에 오른다.
나는 살아있다.



자전거는 인류의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친근한 탈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래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취미와 운동, 나아가 친환경적 생활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운동으로 즐길 때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며, 걷기나 달리기처럼 체중 부하가 큰 운동과 달리 무릎과 발목 관절에 부담도 적다. 또한 무탄소 교통수단으로 대기 오염을 줄이며, 도시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자전거는 교통·환경 문제의 대안이자 국민 건강 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다. 우리나라는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했으며, 2018년에는 UN이 6월 3일을 ‘세계 자전거의 날’로 선포하면서, 오늘날 세계 각국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정책을 마련하며 ‘자전거 친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자전거의 역사는 의외로 길지 않다. 증기기관차가 등장하던 19세기 초, 200여 년 전 처음 발명된 자전거는 페달이나 조향 장치 없이 발로 땅을 차고 나아가는 단순한 구조였다. 이후 약 100년에 걸쳐 조향 장치와 페달, 체인, 다이아몬드 형태의 프

레이미를 갖추며 1894년에 우리가 아는 자전거의 형태에 도달했다. 오늘날에는 첨단 소재와 공기역학, IT 기술이 접목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책은 자전거를 단순한 상품이나 기계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서 깊이 탐구했다. 우리나라 자전거 산업의 태동기인 1944년부터 맥을 이어 온 삼천리자전거에서 수십 년간 일했던 저자는 자전거를 분석하기보다는 애정하는 마음으로 자전거에 관한 지식과 이야기를 풍성하게 담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화첩 속 자전거 스케치에서부터 예술 작품이 된 현대의 자전거까지 역사를 살펴보고, 자전거의 기계적 구조와 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낸다. 또한 패션 브랜드와 대중음악, 영화 속 흥미로운 자전거 이야기와 북한의 자전거, 여성 인권 신장에 기여한 자전거 등 그 인문학적 의미까지 다채로운 시각을 펼쳐 보인다.

어린 시절 부모님 손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처음 페달을 밟던 순간, 학창 시절 자전거를 타고 함께 내달리던 길, 여행지에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던 여유로운 시간... 자전거에는 저마다의 추억이 스며 있다. 다양한 사진과 그림, 알찬 지식으로 버무려진 이 책은 그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2025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300여 명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8월 30일(토)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부산 다문화가정을 위한 축제인 ‘2025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2025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한마음 페스티벌’은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다문화가정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부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러닝 박스게임’과 ‘헝가레 릴레이’ 등 단체 종목은 참가자





들의 협동심을 끌어내며 웃음과 응원이 넘쳐난 가운데 진행돼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만들었다. 이처럼 이번 행사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을 이루는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은 즐거움과 활력을 느끼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겨 즐거웠다는 소감이 이어졌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이 함께 어우러지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는 바람과 “앞으로도 다문화가정과 지역 사회 간의 통합을 적극 도모하고, 다민족·다문화 간의 융화를 이끌어가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 하는 청소년 체육교실 개최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사회공헌 활동 확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8월 13일(수)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지역 사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체육교실’을 운영하였다. 이번 청소년 체육교실에서는 사하구·부산진구·동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소속 아동 119명과 인솔자 16명 등 총 135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롯데워터파크에서 물놀이 체험을 즐기며 건강한 여가 활동을 하였다. 체험 전·후로 인솔자의 지도하에 안전수칙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은 안전하게 레저를 즐길 수 있었다.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에 앞서 8월 8일(금)에는 청소년 체육교

실 인솔자 16명을 대상으로, 아동 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내용은 △사전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사고 예방·대응 절차(SOP) △응급처치·심폐소생술(CPR)·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여름철 열탈진·탈수 대처법 △아동보호 및 신고 의무 사항 등이었으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훈련과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이번 물놀이 체험과 안전관리 교육을 통





해 아동에게는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 시간을, 인솔자에게는 아동 안전관리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역 돌봄기관과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한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또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의 스포츠·레저 참여 기회와 안전문화를 함께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돌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교육자료를 무상 보급해 안전문화의 표준화와 일상화를 지

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사회 돌봄 질적 향상, 아동 사고 예방을 제고, 스포츠 참여에 대한 접근성·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아동의 즐거움과 안전은 함께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포용적인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2025년 중구체육회 임시총회 개최

8월 14일(목), ‘2025년 중구체육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임시총회에서는 2025년 중구체육회 임직원 현황, 사업 및 행사 운영 현황 보고와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기타 토의시간을 활용하여 회원종목단체 발전방안과 전국체육대회 및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구체육회



2025년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8월 4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2025년 청소년체련교실’이 서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청소년체련교실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와 함께 다양한 생활체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농구 교실과 키 크기 바른 자세 스트레칭 교실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모집과 동시에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들은 만족도 역시 높았다.

동구체육회



동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의 진행

8월 28일(목), 이바구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동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는 동구체육회 황현선 회장과 회원종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동구 관내 행사 및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조, 종목단체 발전, 지역체육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영도구체육회



2025년 장수체육대학 개최

영도구체육회가 주관한 ‘2025년 장수체육 대학’이 8월 1일(금) 영도구청에서 열렸다. 두드리고(GO), 힐링하고(GO), 소통하고(GO)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4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노래, 율동, 맨손체조, 건강 상식 배우기 등 다양한 생활체육 체험 행사가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장수체육대학은 어르신들이 건강과 소통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부산진구체육회



제19회 부산진구협회장배 탁구대회 개최

8월 31일(일), 초연근린공원 체육관에서 '제19회 부산진구협회장배 탁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부산진구 관내 수많은 탁구 동호인들은 서로 실력을 겨루며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생활체육 탁구 저변이 두터운 부산진구답게 수준 높은 경기가 이어졌으며, 단체전 A그룹에서는 두드림A, 두드림C, 나이스, 두드림B가, B그룹에서는 돌고래A, G나인, 두드림B, 나이스A가 공동 우승을 차지하였다.

동래구체육회



2025 어린이 체능교실 진행

8월 7일(목), 밀양 리버스톤 펜션 및 말보르 승마장에서 동래구 관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2025 어린이 체능교실'이 진행되었다. 이번 어린이체능교실에는 초등학교생 25명이 참가하여 오전에는 피자 만들기 체험과 승마활동, 오후에는 시원한 물놀이 활동을 하며 자연 속에서 즐겁고 활기찬 여름 추억을 만들었다. 동래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북구체육회



2025년 제80주년 광복기념 북구축구대회 개최

북구체육회는 8월 24일(일) 화명생태공원 축구장에서 광복의 뜻을 되새기고 구민 화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제80주년 광복기념 북구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11개 팀이 참가하여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선수단은 승패를 떠나 톡톡이 다져온 기량을 발휘하고 친선과 우의를 다졌다. 경기 결과, B1리그 우승은 화명축구회가 B2리그 우승은 낙동축구회가 차지하였다.

남구체육회



2025 생활체육교실 운영

남구체육회는 10월까지 '2025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 운영 종목은 국학기공, 태권, 라인댄스, 요가, 생활체조 총 5개의 종목이며 지곡체육공원, 부산문화회관,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장자산 체육공원, UN평화공원 총 5개소에서 진행한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남구민들이 생활체육과 다양한 종목을 무료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체력 향상 및 생활 습관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구군체육회 소식

해운대구체육회



제6회 해운대구 파크골프협회장배 대회 개최

8월 25일(월), 삼락파크골프장에서 ‘제6회 해운대구 파크골프협회장배 대회’가 개최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480여 명의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그동안 갈고닦아온 실력을 뽐냈다. 치열한 경기 끝에 단체전에서는 명문클럽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고, 개인남자부에서는 명문클럽의 강호상 선수가 개인여자부는 명문클럽의 이순명 선수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하구체육회



2025년 어린이 체능교실 및

2025년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가족 여름해양캠프 진행

사하구체육회는 8월 8일(금)과 8월 9일(토), 다대포해양레포츠센터에서 ‘2025년 어린이 체능교실’, ‘2025년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가족 여름해양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사하구 거주 3학년 이상 40명, 3인 이상 가족 40명 대상으로 패들보드, 서핑, 동력을 이용한 놀이기구 체험이 이루어졌고 참가자들은 친구, 가족과 협동심과 모험심을 기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정구체육회



후기성도교회-금정구체육회 교회시설 사용에 관한 업무 협약식 개최

8월 25일(월),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와 금정구체육회는 여성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 풋살팀이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 후기성도교회 김일수 교구장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고, 금정구체육회 최규원 회장은 향후 상호협력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구민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행사는 협약식에 이어 다과회 및 선수단 시축으로 마무리되었다.

강서구체육회



2025년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행사 진행

8월 6일(수),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2025년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행사를 진행하였다. 여름방학을 맞아 80여 명의 가족과 함께하는 이번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 간 소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생활 기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 실천 기반을 조성하였다.

연제구체육회



2025년 제2회 연제구협회장기 피클볼대회 개최

8월 10일(일), 부산광역시체육회 월계관에서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제2회 연제구협회장기 피클볼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무대이자 동호인 간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또한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스포츠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대회였다.

수영구체육회



2025년 수영구 궁도협회장배 대회 개최

부산광역시수영구궁도협회가 주최한 2025년 ‘수영구 궁도협회장배 대회’가 8월 15일(금) 수영정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약 60명의 동호인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또한, 대회를 통해 지역 궁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과 교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사상구체육회



2025 사상구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 운영

8월 9일(토)부터 9월 27일(토)까지 클럽스파이더클라이밍장에서 ‘2025 사상구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었다. 사상구 내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가족 간 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생활체육교실은 주 1회 클라이밍 수업을 진행하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참가자가 주를 이루었으며, 수업은 안전 장비 착용법부터 기본 등반 기술까지 단계별 교육이 이루어져 클라이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장군체육회



2025 기장군체육회 어린이, 청소년 여름캠프 개최

8월 11일(월), 기장군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더운 여름을 피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여름캠프를 개최하였다. 김해 롯데워터파크에 방문한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생(4~6학년) 60명, 중·고등학생 60명 총 120명이 참가하였다. 여름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수상 체험 활동으로 체력을 증진하고 또래 친구들과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신설 프로그램 공개수업 진행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라인댄스와 탁구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8월 20일(수)과 22일(금) 이틀간 무료 공개수업을 진행하였다. 공개수업은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40명이 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특히 이번 신설 프로그램은 최근 진행된 센터 확장 공사로 새롭게 마련된 넓고 쾌적한 강의실에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민들은 체계적인 수업 진행을 경험하며, 정식 프로그램 개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과 활력 있는 생활체육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생활스포츠지도사 현장 실습 실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부경대학교 생활체육연수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합격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습 과정을 진행하였다.

생활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자격 취득 과정에서 이론과 실기 연수를 모두 마친 합격자는 마지막 관문인 현장 실습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을 경험하게 되며, 이번 실습은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이뤄졌다.

실습에 참여한 합격자들은 전문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다양한 교수법을 배우고, 실제 회원이 참여하는 수업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회원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노하우 등을 배우며 향후 생활체육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INFORMATION



테니스장 쿨링포그 시스템 노즐 교체

8월 20일(수), 1일간 테니스장 내 쿨링포그 시스템 노즐을 교체하였다. 테니스장 내 미세먼지 저감 및 무더위 예방을 위해 2024년 4월에 설치한 쿨링포그 시스템은 테니스장 사용 회원의 만족감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앞으로도 기관지에 흡입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테니스장 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아이스 스케이팅 쇼케이스 개최

부산실내빙상장은 8월 9일(토)부터 23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시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스 스케이팅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쇼트트랙 남녀 청소년 대표 선수들은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쳤으며, 피겨 요정들은 피겨스케이팅 공연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아이스하키팀은 스틱 퍼포먼스와 시범 경기를 통해 시민들의 환호 속에 쇼케이스의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부산실내빙상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빙상스포츠를 홍보하고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실내빙상장



체육관 시설 정기 방역 실시

신평장림체육관은 지난 8월에 이용객들의 안전과 위생 확보를 위해 시설 방역을 실시하였다. 이번 방역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내부는 물론 락커룸, 샤워실, 출입구 등 공용 공간을 중심으로 철저히 진행되었다. 신평장림체육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역으로 철저한 위생 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평장림체육관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1

장준서 선수,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3위 입상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소속 장준서 선수는 14세 이하 테니스 대표팀에 발탁되어 체코에서 개최한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에 참가하였다. 단식과 복식 경기를 모두 출전한 장준서 선수에 힘입어 대표팀은 베네수엘라와 독일을 꺾고 3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탄탄한 기본기와 투혼

넘치는 플레이로 세계 무대를 빛낸 그는 한국 테니스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 WKBL 유소년 농구클럽 국제대회 대표 선발전 개최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8월 15일, 8월 16일 해운대구 반송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5 협회장배 부울경 유소년 W농구리그 겸 유소년 농구클럽 국제대회 선발전'을 주관하였다. 이 대회는 한국스포츠컨설팅협회와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에서 공동주최한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유소년 농구클럽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는 무대였으며, 우승 팀에게는 오는

여름 '2025 BNK금융 박신자컵' 개막을 앞두고 열리는 유소년 국제대회 출전권이 주어졌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지난 3년간 매년 철인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스포츠 활성화와 차세대 선수 발굴을 위해 농구대회를 주관하며 다양한 종목에서 스포츠 활성화를 이어가고 있다.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



1

힌트

찰나의 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과녁을 겨냥하는 스포츠, ○○.
부산은 김장미, 김서준 등 걸출한 사격선수들을 보유한 '○○의 도시'이다.

<부산체육> 7쪽

2

힌트

우리는 롤러 한 가족, 부산 ○○○&○○○○○○○○○ 롤러팀

<금빛 훈련일지>10쪽

3

힌트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해양도시 부산은 청소년들의 함성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 '2025 부산-○○○○ 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가 180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진 것이다.

<Sports is Busan> 22쪽

이벤트 응모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네이버 플랫폼 바로 가기

- 응모 기간 2025.9.15.(월) ~ 9.30.(화)
- 응모 방법 네이버 플랫폼 양식 작성 후 제출
-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83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관광업시제유회 공식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노 어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 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

프로들이 선택한 No.1 스포츠 브랜드 어썸스타

KEEP GOING AWESOMESTAR

부산광역시 체육회 공식 스폰서



GIANTS
PARK SE-WOONG

2025
NEW

AWESOME STAR

| <https://awesomestar.co.kr>

| 부산시 체육회 공식 스폰서



walkon, 편안함을 넘어 회복으로

walkon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회복을 추구합니다.
수동적인 멈춤을 통해 회복하는 개념이 아닌, 능동적인 걸음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걸음을 켜고(walkon) 건강을 신다



특허출원번호
제 10-2170264호

Heal Heel

충격에너지를 공간에서 소비하게
만들어, 종아리와 요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20~25%가량 줄여줍니다

Toyole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여, 운동
후 생기는 발의 피로와 붓기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Reushion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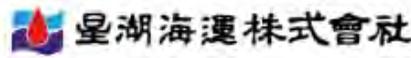
Reushion Project를 통해 환경의
보호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
합니다

After Sports

운동후 피로 회복 / 건강회복에 도움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 자동차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사장님 월급통장

처음이라는
묘한 떨림

첫 가게, 첫 고객,
그리고 사장님을 위한 첫 통장

사장님의 시작이 놓인 곳에
부산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상품바로가기]

[상품유형] 기업MMDA

[가입대상] 만 17세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장당 1계좌 가입 가능)

[입금제한] 최대 1천만원까지 (천원단위로 입금 가능)

- 입금 시 1천만원 넘는 거래가 발생 시 해당거래 전체 입금불가
- 근거계좌로부터 자동저축을 통한 입금만 가능, 그 외의 입금은 모두 제한 (단, 이 통장의 이자입금 제외)

[이자지급시기] 다음 기준일에 계산하여 결산일에 원금에 대하여 지급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일요일
- 결산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당일
- 이자계산 기간은 최초예금일(또는 지난 결산일)부터 결산일 전일까지

[판매채널] 모바일뱅크

[금리안내]

- 기본이율 : 1.60%
- 우대이율 : 카드가맹점 입금실적 연 0.20%p(2025.6.24기준)
-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 적용조건 : 전월기준 근거계좌로 4개 이상 카드사 가맹점결제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입금(자동저축)]

- 자동저축의 기준금액은 전일 근거계좌의 총 입금액에서 총 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준금액에서 설정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확정 금액이 다음날 자동저축방식으로 이 통장으로 입금
- 자동저축을 신청(변경)한 다음날부터 자동저축이 시작(반영)되며 매일(공휴일, 주말포함)적용
- 자동저축금액이 실행되는 시점에 근거계좌의 잔액이 자동저축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체 불가
- 자동저축이 매일 실행되는 시점(오전 8시부터 순차적 실행)의 설정/중단 여부에 따라 해당일의 자동저축 여부 결정
- 자동저축되는 금액은 1천원~1백만원으로 천원단위로 가능
- 두가지의 모으기 방법 중 하나의 모으기 방법만 선택 가능하며 변경 가능
 - ① 비율로 모으기 : 기준금액 X 비율(5%, 10%, 15%)
 - ② 금액으로 모으기 : 고객이 설정한 금액만큼 자동저축 실행

[예금가입 유의사항]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해당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고객센터(1588-6200/1544-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톡톡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
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
(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부산광역시체육회 × BNK 부산은행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한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변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